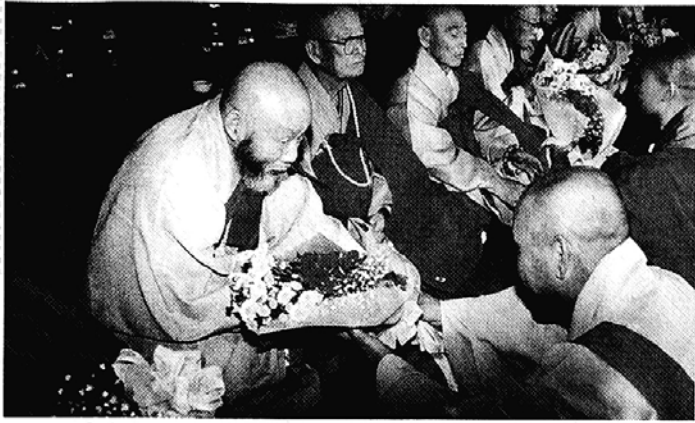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그 순간은 부처됩니다”



◇운제스님(맨 왼쪽)은 98년 11월 선암사에서 태고종 승정에 추대됐다.

다 오빠처럼 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자만심, 교만이지요. 자만심은 결코 자신의 성장에 보탬이 되지 않지만 가장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만심에 휩싸 이다보면 번뇌가 더욱 많아질 때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화의 원인이 되지요.

‘부처-중생 남-여 인간-축생 다 하나’ 1300년전 원효의 평등정신 되새겨야

지만 배웠다는 사실일수록 겸양과 하심의 자제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지식이 곧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울수록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자신을 돌아 보고 하심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며, 또 내자식만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라는 부모들의 아같은 생각은 자식들에게 전이되어 그 자식들이 ‘나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는 곧 너와 내가 하나일 수 없고, 전체가 아닌 나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갖게 해 사회적 혼란까지 야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효승사는 이미 1300년 전에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하지 못할 주장을 하셨습니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보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려 서구사상에 휩쓸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꾸 구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지도하니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다 치열했습니다. 상원사에는 유독 뱀이 많았어요. 뱀은 냉혈동물인데 저녁 무렵 공양간에서 밥을 지을 때면 수십 마리의 뱀이 공양간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뱀이 하도 많아서 무수(無數)뱀이라고도 했는데 스님들이 뱀을 징그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실제로 상원사 스님들은 그 뱀을 전생에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라고 여겼어요. 무수히 많은 뱀이 스님들이었을 거라는 말을 들으면서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대교를 마치고 선원에서 수행할 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설석우 스님을 모시고 한 절 지내고, 오대산 한암스님 회관에서 두 절 남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굳혔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수행이 내 삶을 통해 흔들려 놓은 것은 사실이고, 부처님 그늘에서 지금까지 이 웃을 입고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도처에서 보게되는 우리 이웃들의 우울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 밖에 나와 방영된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생활에 애뒀기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현실의 고통은 어쩌면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정진력을 키우려는 역사적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고 소중한 한 세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인간된 보람을 성취하라는 교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수행일기 백숙희 (불자약사보리회 회장)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던 나는 어린시절부터 불교적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자랐다. 그야말로 직간접적으로 포교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가끔 절에 가고, 힘든 일이 닥치면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께 의지하던 것이 내 종교생활의 전부였다.

자신만 생각하고 산 지난날 반성 불우노인 무료투약 ‘약사의 보람’

세대스님이었다. “누구든지 부처님전에 기도하고 빌어서 뭐든지 다 이뤄진다면, 누가 절에 안오겠느냐”던 스님의 말씀은 무언가 믿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 절을 찾았던 내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무력대고 절을 찾아온 내게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각자가 먼저 제대로 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고 했다.

탑골공원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날 만감이 교차했다. 약을 타려고 줄을 선 그 많은 노인들을 바라보며 불자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앞으로 이 노



인들에게 더 좋은 약과 처방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도 생겼다. 탑골공원 무료투약봉사에 이어 얼마전에는 원주 소재 새마을을 다녀왔다. 아직 활동범위가 미비하지만 그속에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펼쳐나가자 노력하고 있다. 불자약사보리회 활동을 하면서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의 소중함도 새삼 깨우치고 있다.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물은 바. 현 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중구로 건너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이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이 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저: 이운(虛雲)화상, 편: 대성(大鼎)스님, 옮김: 86번원 278호 / 김5500원 /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801-선(禪).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2부 선방 법문, 제3부 참선경어, 제4부 제석보다시증, 제5부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